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6 면 에 서 계 속

그는 청년동맹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우리의 희망찬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함경북도청년동맹조직대표 장현철, 조선인민군청년동맹조직대표 리창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청년동맹조직대표 오수향, 자강도청년동맹조직대표 고후회, 평양시청년동맹조직대표 김정향, 황해북도청년동맹조직대표 지성남 등이 토론하였다.

조선인민군청년동맹조직대표들인 백영명, 장혁, 김대국, 조선인민내무군청년동맹조직대표 함경일, 평양시청년동맹조직대표들인 리은경, 박성철, 천성일, 최순철, 평안남도청년동맹조직대표들인 박철민, 오성진, 김성남, 정성화, 평안북도청년동맹조직대표 김영길, 황해남도청년동맹조직대표 송영민, 자강도청년동맹조직대표 심명철, 함경남도청년동맹조직대표 김충성, 함경북도청년동맹조직대표 림현국, 강원도청년동맹조직대표들인 김승민, 김상용, 량강도청년동맹조직대표 김금향, 남포시청년동맹조직대표들인 한철, 김우철, 한현욱, 라선시청년동맹조직대표 하광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청년동맹조직대표 김상민, 속도전청년돌격대청년동맹조직대표 최성룡, 내각청년동맹조직대표 김영일, 철도성청년동맹조직대표들인 김창호, 림은심, 문화성청년동맹조직대표 오청송 등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동맹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럽도록 금방석에 앉혀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청년동맹원들이 혁명의 계승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으로 억세게 자라난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동맹건설과 활동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감으로써 청년동맹조직들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총직하게 받드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되였다고 말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가장 중핵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집행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린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동맹조직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새, 령도자와 사상과 숭겔, 발걸음을 같이하는 일편단심의 대오로 꾸린데 대하여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의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을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운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수많은 청년동맹조직들이 김일성청년영예상단체, 김정일청년영예상단체와 청년전위모범단체의 영예를 지니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참신하고 공세적으로 벌려 청년들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무장하고 김정일애국주의와 죽어도 변치 않는 혁명신념, 투철한 반제계급의식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나날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타래치는 불길과 폭우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와 당의 기본구호, 혁명적구호문헌을 목숨바쳐 보위하고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영생탑, 당의 기본구호들을 지켜낸 수령결사옹위의 투사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적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백수십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인민군입대, 북대를 관원해나섬으로써 투철한 수령보위, 혁명보위, 조국보위정신과 원쑤격멸의 의지로 만장약된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기개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20살 꽃나이에 《처녀어머니》가 되고 사회와 집단, 동지들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며 영예군인들의 영원한 길동무가 되는것을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대가정에 미덕의 향기를 더해주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고 힘있는 부대인 청년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루사로, 영웅으로 키우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조직동원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안의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군인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국방과학기술부문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과학자, 기술자들과 청년들이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는데서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관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 용약 달려나가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총진군대오의 전렬에 내세워 사회주의강국의 문패를 남먼저 달게 하려는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군인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만난시련을 뚫고 헤치며 청년영웅도로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는 영웅적위훈을 창조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대지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고 청년들이 당의 위업을 결사옹위하는 믿음직한 전위대,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선군청년혁불상쟁취운동과 청년돌격대활동,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을 통하여 청년들이 사회주의농촌진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소년단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열렬한 소년혁명가들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와 경험이 이룩된데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나가며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청년동맹사상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가르치심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관철하며 청년동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인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사업전반을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감으로써 500만 청년대군이 김정은결사옹위의 혁폭한이 되고 억만년 드높지 않는 성새가 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총진군대오의 선봉에서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모든 동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곧바로 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청년동맹안에 세워진 교양체계를 정상적으로, 실효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이 새롭게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깊이 체득하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일군들이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다방면적인 지식,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청년대중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실천가형의 일군, 군중공작의 능수가 되여야 하며 청년들을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기관차, 유능한 청년혁명학교 교원이 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발휘되고있는 청년전위모범초급위원회,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 청년전위모범학급쟁취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모든 청년들이 3대혁명기수가 되도록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성조선의 모습은 성적증에 먼저 그려진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하고 어려서부터 자립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지닌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키우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청년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청년교양의 화력을 집중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인 당의 과학기술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것에 민감하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솟솟솟치는 청년들이 선봉에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만리바시대의 영웅청년이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실천이고 승리이라는 진리를 심장깊이 새기고 자력자강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뜻깊은 올해에 려명거리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백두의 정신한 정기와 억센 기상이 어려있는 선군청년문화를 활짝 꽃피워나감으로써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며 청년동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가는데서 자신들이 맡은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들이 진행되는 동안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전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김주일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축하시 《축하를 드려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를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먼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다음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결정내용이 발표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로 전용남, 비서로 박철민, 장현철, 배충일, 김경준, 리성호, 장룡길, 정영원, 함광철, 리금철이 선거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였다.

또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이 임명되였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선거결과가 발표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오르는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하시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총정을 담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기발을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맹세를 다지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의 구호선창에 화답하였으며 최고사령관기와 청년동맹기발, 붉은기를 흔들면서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폼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새로 선거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봄가까이 부르시여 당의 높은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져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며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본분을 다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심단결의 대회, 총정의 대회로 김일성-김정일청년운동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